



## 요약

### 사실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의 ADMA.

### 양성 여정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신부이신, 마리아.

###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DON ANGEL FERNANDEZ ARTIME 총장 신부의 편지 - 150년의 여정.

### 아드마 입회지원자 양성

아드마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 가족의 연대기

- 동티모르 - 동티모르 준관구 ADMA 제3차 관구대회 개최.

- 코스타리카 - ADMA 제6차 중앙 아메리카 대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인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 사실

### P.1

##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의 ADMA

사랑하는 ADMA회원 여러분,

### P.3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전통에 따라 Valdocco에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250여 명이 모여, 모든 살레시오 가족을 위한 모임인, 세계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에 참여하였습니다. Angel Fernández Artime 총장 신부님께서, 올해의 스트렌나인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를 통해 살레시오 가족의 평신도 차원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 P.5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의 일원인 ADMA 회원으로서 서약을 갱신하였습니다.

### P.6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입니다. 돈 보스코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주보로 선택한 살레시오인입니다. “살레시오”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나약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완덕으로 모든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역사의 사건 안에서 참된 창조와 인간의 삶 안에서 긍정적인 뿌리를 내려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합니다.

### P.7

### P.9

우리 가정은 무한한 사랑이신 삼위일체의 신비인,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는, 모든 인간 가족의 근원이며 모델, 목표에 깊은 뿌리를 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 생활에서 “하느님과의



영적이고 사목적인 삶을 특징 짓는 세 가지 신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살레시오 가족은 성모 마리아의 가족이며 원죄 없으신 신자들의 도움이신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ADMA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기본 요소이며, 성 요한 보스코가 실천하고 전파한 성체성사와 마리아 신심에 중요하다고 믿줄을 굶는 임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DMA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젊고 대중적인 사명에 참여하며, 하느님 백성 가운데 믿음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며 수호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 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 하느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둡니다. 2) 영성생활과 사도직 활동의 중심에는,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그분과 일치하도록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 관대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구체적인 헌신으로 일상의 영성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돈 보스코의 젊고 대중적인 사명,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교회의 도움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공경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은 성령께서 영혼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내적 역동성을 그 안에서 창조하신다는 점에서 **사도적**입니다. 살레시오 가족 구성원은 돈 보스코의 교육적 지혜인 예방교육을 촉진하는 «선교적 친교»를 실천합니다. 1) 이성,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일, 공부, 우정, 명랑함, 신심, 자유의 의미로 책임지는 자세, 인간적 지혜와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조화를 말한다). 2) 종교는, 구원을 위해, 은총의 여지를 만들고,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키우며, 우리 주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격려한다. 3) 자애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젊은이들이 사랑받을 뿐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특별한 방법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 일으켜, 자신을 내어주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살레시오 가족에게 주신 선물인, 사랑받기에 충분한 젊은이들은, 주님과 마리아께서 돈 보스코에게 말씀하신, 서민층 가정의 청소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은 **마리아**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영성은 마리아의 헌신과 빛나는 모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 대한 사랑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황님께 대한 사랑과 함께 돈 보스코의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신부이신, 마리아

세상 창조부터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활동과 아드님의 참여를 통하여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은 마리아 안에서 시작되었다. 마리아는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느님께 관대한 ‘예’를 드렸다. 그의 마음에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자를 그의 태중에 모시게 되었다. 성모님께서 천사의 알림을 받으신 성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의 신비 앞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임의로 수행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계획 수행을 위해 갑자기 역사를 거스르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강요가 아닌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피앗**”은 조건 없는 총만함이다. “**피앗**”은 마리아의 자발적인 응답이다. 구원 역사의 여러 중요한 순간의 응답인 “**피앗**”, 마리아의 응답인 “**피앗**”,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던 순간의 “**피앗**”,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피앗**”. 이 세 가지는 모두 의지의 행위이며 선택의 표현이다(Cantalamesa, 1990, p.11).

마리아의 ‘**예**’는 계약의 연속선상에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신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자유롭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마리아의 순명으로, 인류와 함께 하는 하느님 사랑의 계약이 된다. 마리아의 “**예**”는 인간적 행위로서만이 아닌 거룩한 행위로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일깨우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느님을 자신의 의지로 총만하게 받아들였고, 자유롭게 그분께 자신을 드렸으며, 하느님 사랑에 자신을 맡겼으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성령의 신부라고 부른다.

마리아의 모범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을 배우는 마리아의 자세를 배운다. 믿음의 자세로 하느님 안에서 계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 이성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믿음의 역동성에 들어간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하느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천사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 마리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믿지 못해서 순응할 수 없다고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그 이유를 묻는다. 마리아는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한 신비 앞에서, 그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주님께서, 그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에 뿌리를 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사랑으로 움직이다

성령의 활동은 마리아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은총으로 입히시고, 그녀를 구세주의 거처로 만든다. 성모님을 삼위일체와 결합시키는 사랑의 친교 안에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봉사와 애덕의 상징인 엘리사벳 방문은 마리아의 관대함과 항구함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마리아의 태중에 거하시는 사랑은 친밀한 경험이 아니라, 깊은 기쁨으로 주어지고 전달되는 은총이다.**

마리아는 고령인 사촌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위대하신 하느님의 능력은 무엇이든 다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충실하기를 바라신다. 마리아는 엘리사벳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희생이 따르는 관대한 응답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서둘러 그의 친척을 만나러 간다. 마리아는 천사의 알림을 받은 후,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봉사하기 위해, “서둘러” 여행을 떠난다는 (루카복음 본문에서 그 직후에 나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것은 복음을 통해 잘 드러난다. 더욱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에게 준 “표징”은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사명예로의 초대인, 엘리사벳과 그녀의 가족(아직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포함)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분이신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한 “떠남”이다 (Chávez, 2012).

마리아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같은 사랑의 움직임에 자신을 맡긴다. 그녀는 자신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역사에 기여하라고 초대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의 사랑은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희망의 몸짓으로 드러난다.

성서에서는 놀랍게도 엘리사벳 방문에 대해, “마리아는



서둘러 떠났다”고 한다.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강한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한다. 이 사랑은 그녀의 내적 움직임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다가가도록 재촉하는 사랑이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여성의 모범이며, 주님이 그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그녀의 능동적 모습은 다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느님 사랑의 확실성은 마니피캣의 기쁜 선포로 표현된다. 그녀가 입술로 선포한 감사는 매일의 피앗에 대한 관대함과 조화를 이룬다. 마리아는 자신의 단순함을 알기에 하느님을 찬양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구원의 온순하고 비옥한 토양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하느님의 뜻에 기쁨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모범을 목상했다.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말과 증거로 잘 표현된다. 그분의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며 그분의 메시지에 담긴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목상을 풍성하게 해보자. 하느님께서서는 인류와의 계약을 지속하시고 업데이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 살레시오 프란치스코는 출발한다.

하느님 사랑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께, 의지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역할은 더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선택을 도우시며,

심지어 그 도움을 가져오십니다. 인간의 사랑의 선택은 인간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의 행위입니다(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그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복음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고유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느님의 뜻과 참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므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끊임없는 사랑의 갱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순명을 고취시키며, 사명을 위해 우리를 온순하게 만드는 기준은, 자유의 정신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불순명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순명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 양심의 가책, 선동이 아닌, 자유의 정신을 남깁니다.”

하느님께 개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체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끌어 주며,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자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참된 영적 길이 성취되고, 자기실현의 과업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선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 나아감이며 방향입니다”(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선의 실천, 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온순하게 그분의 뜻에 자신을 열면, 우리는 세상에서 봉사하고 교육하며 사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모범과 살레시오 영성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읽고,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응답에 대해 말하도록 초대받았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FIAT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의지를 극복하고 주님의 빛을 구하는, 세상을 향한 보이는 표징이며 사랑의 결실이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위해

1. 나는 개별적인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까?
2. 나는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범을 따라,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온순하게 열어드립니다까?

4. 주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심을 알기에, 나는 주님께 매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 이 달의 약속

매일 저녁, 그날 일어난 크거나 작은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 총장 전공 서한, FR. 엔젤 페르난데즈 아르티메 150년의 여정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돈 보스코에 대해, “신자들의 도움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신심의 활성화자(...)로서, 젊은이들, 특히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탁월한 방식으로 이를 전파했다”고 하셨다.

우리의 사랑하는 창립자는 새로운 형태의 사도직을 일으키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살레시오 가족이 탄생한 지 정확히 10년 뒤인 1869년 4월 18일에 그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를 설립했다.

돈 보스코는 아름다운 글을 썼다. “마리아는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서, 땅 위에서 시작하셨던 그의 사명을 하늘에서도 계속하고 계시다.” 마리아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은총의 중재자라는 모성적 사명을 모든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현존하신다.

**돈 보스코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구체적인 마리아의 현존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았고 그의 일을 완성했다. 성모님은 당신이 살레시오 가족의 “창립자”이며 “보호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총장은 성모 마리아의 중재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던 돈 보스코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직접 체험한 신앙 여정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1862년 돈 보스코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당이 살레시안들과 발도코의 소년들에게 너무 좁았기 때문에 더 큰 성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해 마드레 마자렐로와의 만남은 여성 세계로의 살레시오 카리스마 확장의 시작을 나타내며, 이어서 ADMA와 살레시오 협력자들이 탄생하게 된다.

대성전 건축과 함께 돈 보스코는 어려운 상황이었는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집”을 짓는 성모님의 적극적인 현존을 경험한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준다. 착한 피에몬테 사람인 돈 보스코는 종종 그렇듯이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혼자 그 상황을 떠맡아 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자들의 자발적인 봉헌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돈 보스코의 일곱 번째 후계자인 돈 에지디오 비가노는 이렇게 요약한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와 그녀의 많은 위대한 계획들, 특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회, 살레시오 수녀회(FMA), 살레시오 대가족의 사업들을 볼 때, 그에게 이 일은 도움이신 마리아의 손길을 바라며 보살핌을 받는 그분의 큰 일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돈 보스코는 이렇게 말한다.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 아드마 입회지원자 양성

### 아드마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ADMA는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에 충실한 평신도들의 신심회로서, 마리아의 망토 아래 그녀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녀를 본받으며 살고자 합니다. 신심회가 제안하는 그리스도교 교육, 기도, 사도직 및 봉사의 길은 단순하고 가족적인 스타일의 특징을 지니며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공유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원의가 서서히 성장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이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입회지원기는 마리아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들어가, 마리아의 학교에서 그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세계의 다양한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여, 거기에 맞는 형태와 시기를 취하게 됩니다. 토리노 발도코의 아드마 프리마리아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획 시리즈로 입회지원기에 대해 게재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선택한 각 지역에서의 그 지역 상황에 따른 아드마 양성교육과정을 요약하여 실게 됩니다. 이를 제안하게 된 것은,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회원들이 신앙의 체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살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성교육 과정의 다양한 장은 주로 신심회의 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본질적인 방식으로 상기시킬 것입니다. 주된 관심은 개인 회원의 신앙 생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보스코의 원의에 따라 신심회의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신앙을 수호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8단계로 신심회 규정의 조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 1. 아드마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양성교육 과정의 시작은 규정 제1조이며, 이는ADMA의 창립에 관한 주제입니다.

돈 보스코는 신심회를 1869년 4월 18일에 창립하셨으며, 첫 규정을 주셨습니다. 신심회의 창립은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 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은 신심회가 창립되기 1년 전, 1868년 6월 9일에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대성당을 통해 돈 보스코는 1844년의 유명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양치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아주 높은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띠에, 큰 글씨로 “HIC DOMUS MEA, INDE GLORIA MEA”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도움이신 마리아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돈 보스코는, 스스로 이 신심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의 영광을 전파하고, 삶 속에서 특히 죽음의 순간에, 성모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움이신 마리아의 신심회를 만들 결심을 합니다.

돈 보스코가 ADMA라고 신심회의 이름을 붙인 것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신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참된 신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은총) 그분의 선물에 대해 응답하는 참된 사랑이 신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심을 가진 자”는 거룩함의 길을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심”은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믿는 이들 안에서 모든 행동과 일을 완성하여 “믿는 이”를 더 친절하고 호감 있게 만들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소와 사명에 따라 더욱 용감하고 기꺼이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 보스코의 일곱 번째 후계자이자 살레시오 회의 총장인 에지디오 비가노 신부는, 신심은 삶의 자세와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모님을 집 안에 모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로 자녀가 되었으니, 마리아의 모성애로 보살핌을 받아 그 효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은 돈 보스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오라토리오의 소년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적인 영적 성장의 근본적인 단계를 넘어, 그를 온 세상의 “위대한 도움이신 마리아의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대성당과 함께

ADMA는 돈 보스코가 특히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에게 의탁하는 단순하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탄생했습니다. 신심회원들에게 돈 보스코는 신자들의 가톨릭 신앙을 강화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사도직과 교육 활동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종교성을 강화하며 복음적 지혜를 지향하는 도구로 마리아 신심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여 신심회원들은 하느님과 마리아 사랑의 표징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에게 의탁함으로써, 그들은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속지 않고 삶의 증거와 투신으로 젊은이 교육, 가정,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도움으로 돈 보스코의 정신에 따라 일상 안에서, 가족적이며 단순하고(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필수 사항) 실천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는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현존하고 활동하심을 인식해야만 가능합니다. 비가노 신부님께서 기억하시듯이,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두 사람에게만 실현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예수와 마리아! [...] 우리도 “마리아를 집으로 모셨던”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본받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부활의 강한 현실성을 진지하게 심화합시다. [...]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 보스코께서는 성모님을 도움이신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공경하였고, 이것은 그의 신심의 특징이며, 돈 보스코의 정신입니다.»**

Gian Luca와 Mariangela 자주

##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 “그녀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돈 보스코께서는 그의 젊은이들에게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본래의 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자신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리아적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그러나 마리아는 돈 보스코와 다른 많은 이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고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돈 보스코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신자들의 도움”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전투를 하는 군대처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힘을 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주 피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합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나는 마리아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로 향한 이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있는 CEDES Don Bosco에서는 대부분의 집에서 그렇듯이 매년 젊은이들을 연구소 외부 피정에 데려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난 5월 12일 금요일, 우리는 학교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가 전복된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María Auxiliadora!”(도움이신 마리아님!)** 뒤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좌석 앞의 파이프를 잡았으며, 단 몇 초 안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튜브가 머리에 씌워지고 엄지손가락이 뒤로 꺾이고 팔을 약간 베인 채 좌석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른 자리를 잡았고 내 좌석 부근 선생님들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 서로 괜찮은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일어나서 서로 돕고 유리 조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벽돌공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고 우리는 버스 지붕을 뚫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구급차, 경찰이 오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골절되지 않았으며, 모두 괜찮았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골절되지 않고 경미한 충돌과 울음소리가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서두르는 와중에 나는 뒤집혀진 버스로 다시 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지 생각하며, 소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의 40명인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기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고마워 마리아! 당신은 우리를 돌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을 챙긴 후 병원으로 가서,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붕대와 약을 가지고 성당으로 갔고, 거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발생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그런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기했습니다. 모든 가설을 세워 보았지만, 내린 결론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합니다! 성모님의 기적입니다! 나는 내 상처를 보았고 하느님과 마리아의 사랑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 입게 될 모든 상처는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느님께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날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질문해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까? 그 답은 삶의 여정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온전히 성모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기념하기 전날인 5월에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바치는 9일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모두 그날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그다음 월요일에 모든 학생들과 함께, 전에는 거의 바치지 않았던 성모송을 마음을 다해 바쳤습니다. 나는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도록, 성모님께 그들의 삶을 계속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브랜든 피게로아, SDB**

은혜를 받았다면 사진과 함께 짧은 간증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





## 가족의 연대기

### 동티모르 - 동티모르 준관구 ADMA 제3차 관구대회 개최



**파투마카, 동티모르 - 2022년 11월** - 동티모르 준관구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파투마카에 있는 국립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에서 제3차 관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50명의 ADMA 신심회원이 참석한 이 대회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티모르 ADMA의 영적 활성화자인 Manuel Da Silva Ximenes 신부와 FMA 세계 살레시오 가족 담당 Lucrécia 수녀가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대회의 이 3일 동안 많은 강의를 있었는데, 그 중 FMA 에스메랄다 소아레스 수녀가 총장신부의 스트렌나에 대해, 그리고 SDB의

아폴리나리오 네토 신부가 살레시오 가족의 카리스마적 정체성에 대해 강의하였고, 세 번째 강사는 동티모르 살레시오 준관구장인 Anacleto Pires 신부가 말과 행동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강화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2022-2026년 동안의 새로운 관구조직에 대한 선거도 실시되었습니다. 회장 João Brito Gusmão Ximenes, 부회장 Maria Lourdes Sousa, 서기 Ana Mafalda S. da Costa, 총무 Domingos Belo가 선출되었습니다.

### 코스타리카 - ADMA 제6차 중앙 아메리카 대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인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 요셉, 코스타리카 - 2022년 10월** -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ADMA)는 지난 10월 7일과 8일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인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라는 주제로 제6차 중앙 아메리카 대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겸한 대회로 코스타리카 신심회원들은 대면으로 산조세의 돈 보스코 성당에 모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표자들은 Zoom 플랫폼을 통해 회의를 참여하였으며, 코스타리카의 살레시오 가족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각 참가자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성덕의 모범인 도움이신 마리아께 살레시오 가족을 위해 묵주의 기도로 시작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주제 심화로 SDB의 Julio Navarro 신부의 강의, “**여성 신자 마리아**”가 있었고, 코스타리카 아드마 살레시오 영적활성자 Guido Maroto 신부가 본회의와 성체조배, 살레시오회 중앙 아메리카(CAM) 관구장 don Ángel Prado의 “**살레시오 밤인사**”를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 전파의 필요성과 돈 보스코의 신심회의 창립 목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ADMA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체성사와 마리아 차원에서 항구하게 교의를 전파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초대입니다.**”

####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